

한국 VS 미국 닭고기 축제 **미국**

치킨산업으로 시작되어 치킨 축제가 열리는 도시로!



이영미 전시기획자

60대의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대표적인 다국적 패스트푸드 기업으로 일구어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KFC)의 창립자인 커넬 샌더스(Colonel Harland Sanders). 그는 애초에 사업의 꿈 보다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 자신이 개발한 닭요리 레시피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다. 그가 처음 식당을 열어 프라이드 치킨을 선보인 미국 중부 켄터키 주의 작은 마을은 매년 이 전설적인 인물을 기리기 위한 축제를 열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의 입지전적인 이야기가 바로 'World Chicken Festival'. 이 이곳에서 열리게 된 배경이 되었다.

월드 치킨 페스티벌**World Chicken Festival**

월드 치킨 페스티벌(World Chicken Festival)은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시작되었다. 올해로 21번째 열린 축제는 지난 9월

23~26일 4일간 '런던' (영국의 런던과 이름이 같다)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열렸다. 계란을 응용한 흥미거리와 재미난 볼거리가 가득한 축제로 이미 켄터키 주의 자랑거리이자 가장 큰 축제로 자리잡았다.

흥겨운 음악과 지역출신 연예인의 공연 같은 단골 레퍼토리뿐 아니라 저만의 닭 요리법을 선보이는 쿡킹 콘테스트, 핫윙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을 뽑는 핫윙 먹기 대회, 닭 울음소리 콘테스트, 두둑한 상금이 걸려있는 계란 깨지지 않게 떨어뜨리기 대회 등은 이 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흥밋거리다.

어린이들이 신이나 하는 이벤트로는 무대에서 직접 참여하는 서커스 이벤트와 스폰 레이스, 계란 옮기기, 닭 잡아보기 같은 재미있는 게임으로 구성된 병아리 올림픽에 참가하는 재미난 이벤트들이 열렸다.

먹거리 행사를 빼놓을 수 없다. 세계에서 가장 큰 스테인레스 스틸 냄비에 닭을 튀겨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이벤트는 모두가 가장 기다리는 행사로 꼽힌다. 1992년 시작된 이래로 매년 1십2만개의 닭튀김이 준비되어 방문객의 입맛을 즐겁게 한다.

이 행사는 지역의 자원 봉사자들이 참여한 영하며 튀김 냄비와 버너, 연료 등은 기업체들의 기부로 이루어져서 방문객은 약간의 돈을

치킨산업으로 시작되어 치킨 축제가 열리는 도시로!



지불하고 맛볼 수 있다.

퍼레이드 또한 재미있는 볼거리 중 하나이다. 월드 치킨 페스티벌의 퍼레이드는 참가자들이 직접 닭을 주제로 의상을 준비하여 도심에서 퍼레이드를 시연하는데 우승자에게는 참여 업체별 이름이 명명된 상이 주어진다. 닭을 좋아하는 남녀노소가 참여하여 먹고 즐기는 문화이자 외지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켄터키 주의 관광아이콘이 된 것이다.

미국인들의 닭 요리 소비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매우 높은 편이다. 2007년 1인당 소비량이 약 41kg(90 pounds)였으며 전체 레스토랑 중 95% 이상이 닭 요리를 메뉴로 갖추고 있다고 한다. 흥미로운 건 레스토랑의 메인 요리로 주문되는 닭 요리의 절반 이상이 프라이드

- ① 계란 떨어뜨리지 않고 던지기 시합을 하는 아이들
- ② World Chicken Festival의 손꼽히는 볼거리는 세계 최대 크기의 스테인레스 스틸 냄비에 닭을 튀겨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이벤트로 매년 12만개의 닭튀김이 방문객의 입맛을 위해 선보인다.
- ③ 닭과 계란으로 분장한 인형들이 치킨 파스타발을 찾는 어린이들을 촬영하고 있다.
- ④ 닭으로 분장한 참가객이 닭울음소리를 흉내내고 있다.
- ⑤ 애원달이나 드물게 볼 수 없는 희귀종의 닭을 볼 수 있다.
- ⑥ 야외에서 열린 행사장 내 치킨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식당

드 치킨이라는 점이다. 튀김을 좋아하는 식성과 맛 때문이지만 이런 친숙한 문화 배경이 프라이드 치킨을 더 소비하게 하는 게 아닐까?

뮤직시티 치킨 페스티벌

Music City Hot Chicken Festival

닭 요리에 대한 사랑은 지역 축제에도 반영이 되었다. 뉴욕을 대표하는 대중적인 음식이

한국 VS 미국 닭고기 축제 **미국**

치킨산업으로 시작되어 치킨 축제가 열리는 도시로!



⑩ 내슈빌 뮤직시티 핫치킨 페스티벌의 로고인 닭의 철물 모형이 전시하고 있다.
 ⑪ 치킨 페스티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젊은이들
 ⑫ 핫잉 치킨요리를 즐기는 방문객. 머리 모양을 닭벼슬처럼 꾸몄다.

- ⑦ Princes Hot Chicken 식당의 매운맛 핫잉을 먹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 ⑧ 선착순 500명에게만 제공되는 핫잉을 먹기 위해 관람객들은 길게 늘어선다.
- ⑨ 대부분의 행사는 옥외에서 열리며 지역 업체들의 활발한 참여로 많은 인파가 붐비는 마켓으로 변한다.

피자라면 내슈빌에서는 ‘핫치킨’이 손꼽힌다.

미국 컨트리 음악의 요람이자 대표적인 음악 도시인 내슈빌에서는 매년 뮤직시티 치킨 페스티벌(Music City Hot Chicken Festival)이 열린다. 전 시장이었던 빌 퍼셀(Bill Purcell)이 미 독립기념일을 경축하기 위해 그리고 지역 주민에게 볼거리를 주고자 자신이 핫치킨 요리를 즐겨먹던 데 착안하여 시작되었다.

4회째 열린 지난 행사에서는 컨트리음악이 흥겨운 가운데 미국 남부의 정서가 물씬 풍기

는 식당들의 대다수 참가하여 올해는 참가자 중 선착순 500명에게 매운맛의 치킨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미리 모집 공고를 내건 일반인 핫치킨 경연 대회에는 미리 자신만의 레시피를 뽑내려는 지역주민들이 응모하여 그 중 선별된 6명만이 당일에 직접 시연의 기회를 가졌다. 내슈빌 시의 시장과 지역 유명 가수를 비롯한 지역 인사로 구성된 심사 평가단의 심사로 우승자에게는 핫치킨 트로피와 튀김기가 주어졌다.

야외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더운 날씨에 먹는 불같이 매운 맛의 치킨 요리 때문에 매운맛을 잠재울 수박을 실은 트럭과 내슈빌이 생산지인 맥주 Yazoo의 비어 가든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치킨산업으로 시작되어 치킨 축제가 열리는 도시로!



13 14



15

‘핫치킨 핫뮤직 그리고 시원한 맥주거품(hot chicken, hot music, and cool suds)’이라는 간판이 행사의 메시지를 완벽하게 드러낸다.

치킨을 주제로 외양을 단장한 이들이 속속 모여들게 되고 시, 기업, 지역 주민들이 한데 모여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소개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이 행사는 불과 4년 만에 내슈빌의 문화 아이콘과 음식이 더해져 참여하는 모두가 즐거워하는 가장 인기 있는 이벤트로 자리잡았다.



17

- 13 내슈빌의 뮤직시티 핫치킨 페스티벌 주최측은 작년보다 2배가 크게 열린 이번 행사에 매우 고무되었다고 한다.
- 14 핫윙 먹기 콘테스트에 참가한 이들의 진지한 모습
- 15 닭모양의 귀걸이가 걸려있는 동상
- 16 내슈빌은 컨트리음악의 본고장답게 가수들의 공연도 쉽게 볼 수 있다.
- 17 일반인의 닭고기 요리경연대회도 펼쳐진다.

Chicken Capital of the World 갱스빌(Gainesvil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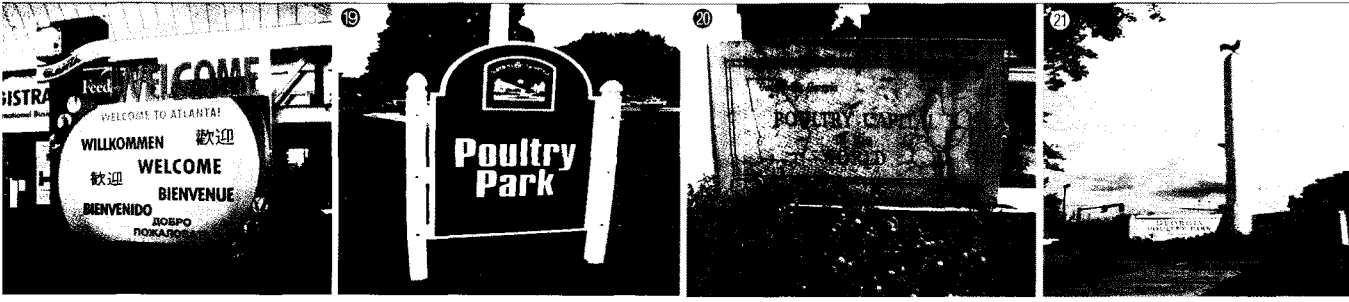
지역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은 인근 도시에 부가적인 가치를 더하기도 한다. 미 조지아 주의 갱스빌(Gainesville)은 ‘Chicken Capital of the World’라는 별명을 가진 인구 3만여 명이 거주하는 소도시이다. 재미난 사실은 이 도시에서는 포크로 닭 요리를 먹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단지 이유는 너무

맛있기 때문이란다. 맛있는 요리는 손으로 발라먹어야 제 맛임을 아는 우리네와 같아 친근한 맘이 든다.

그런데 이 같은 재미있는 아이디어는 그냥 나온 게 아닌 듯싶다. 알고 보니 이 도시는 가금류 가공 산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로 이곳의 특징을 유쾌하고 신선한 발상으로 입혀 단번에 기억하게 한다. 이러한 산업 발달로 인근 대도시인 애틀랜타에서는 미 양계협회가 주최하는 세계양계박람회(International poultry Expo)가 매년

한국 VS 미국 닭고기 축제 **미국**

치킨산업으로 시작되어 치킨 축제가 열리는 도시로!



18 2010 아틀란타 양계 박람회 전시장 입구
 19 'Chicken Capital of the World'라 불리는 갱스빌 시내에 위치한 Poultry Park
 20 '양계의 도시'라고 쓰여있는 기념석
 21 미 조지아 주 갱스빌의 poultry park 중심부에 위치한 타워, 이 도시의 상징인 닭이 꼭대기를 장식하고 있다.

1월 개최, 미국 내 그리고 세계 각국의 관련업자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 갱스빌의 2차 가공산업이 3차 산업까지 일으켜 경제를 부양한 셈이다.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닭고기!

지난 5월에는 닭고기의 소비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치킨 페스티벌이 축제 분위기에서 열려 특히 가족단위 일반인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먹거리가 많고 닭에 대해 교육적이고 재미있는 볼거리가 있어서 아이들과 즐거운 나들이가 되었다는 주부들의 입소문이 블로그를 통해 활발하게 전해졌다. 주부들이야말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먹거리에 누구보다 민감하고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장 볼 때마다 나들이 겸 들른 축제에서 맛본 먹거리와 알게 된 식품에 한번 더 손이 가지 않을까?

한국인의 2007년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13.3kg로 불과하다.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인 기간식이자 직장인들이 퇴근 후 부담 없이 찾는 호프집의 메인 메뉴가 치킨이다. 주변의 프랜차이즈 치킨집들의 간판 수를 보더라도, 매년 여름철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먹는 우리 식문화를 비춰보면 의외의 결과이다.

월드 치킨 페스티벌이나 내슈빌의 뮤직시티 핫 치킨 페스티벌처럼 국내에도 일반인의 참여와 호응 속에서 지속적이고 꾸준히 개최되는 축제가 있다면 무엇보다 양계산업과 소비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꼭 대도시에서 열리거나 대규모여야 할 필요는 없다. 먹거리와 볼거리가 많은 내실 있는 축제라면, 일반인들의 참여와 공감을 얻는 축제가 되면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쉬는 문화가 자리잡은 요즘, 대한민국 어디든 안 갈 이유가 없다.

최근 지자체들은 각기 지역 브랜드와 농산물을 내세워 지역홍보에 목청을 높이고 있다. 국내에도 닭에 관한 음식과 문화를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리고 있는지, 지역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